

# 〈貧妻〉의 인물에 나타난 자아와 세계

尹 致 富\*

## 目 次

- |                 |               |
|-----------------|---------------|
| 1. 들머리          | 3. 인물의 갈등과 대립 |
| 2. 인물의 성격창조와 유형 | 4. 마무리        |

## 1. 들 머 리

〈貧妻〉는 1921년 〈開關〉에 발표된 현진건의 자전적 성격이 강한 단편소설이다. 1920년 이후 20편의 단편과 3편의 장편을 남긴 憑虛에게 있어 〈빈처〉는 그의 초기작에 속하며,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전당포행이나 하는 정신가치 지향의 무명작가와 그의 양순하고 가난한 아내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의 폭등과 월급의 상승 및 주식의 이익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따지는 대립적인 인물들을 그 주변에 보조인물로 배치시킴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은연 중에 반영시키면서, 고등유민으로밖에 머물 수 없는 지식인의 현실 소외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학작품의 이해를 대립의 논리로 파악할 때<sup>1)</sup>, 〈빈처〉의 이해에도 自我와 世界의 대립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 양상은 바로 작품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나

\* 同門,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 趙東一; “自我와 世界의 小說의 對決에 관한 試論”,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81, p. 91.

게 되며, 이는 곧 그 작품의 작품세계를 결정하는 근본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가의 작품외적 자아와 대립되는 작품외적 세계가 무엇이며, 이들은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에 어떠한 모양의 작품내적 자아와 작품내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2. 인물의 성격창조와 유형

소설은 작중인물 사이의 갈등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그 갈등구조의 주체가 바로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와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이다. 프로타고니스트는 작가 자신이 긍정하려는, 또 그 긍정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인물인 반면, 안타고니스트는 작가나 독자가 끝에 가서 부정하는, 또 부정해야 할 인물이다<sup>2)</sup>. 이러한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 내지는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의 성격을 띠게 된다<sup>3)</sup>. 평면적 인물은 그 등장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 속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는 단순 인물(simple character)이다. 이에 반해 입체적 인물은 인생의 무궁무진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인물로, 평면적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 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복합인물(complex character)<sup>4)</sup>임을 뜻한다. <빈처> 역시도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대립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평면적 인물 내지 입체적 인물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물의 창조는 직접 한정·간접제시·類比(analogy)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간접제시는 행동·담화·외양·환경 등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sup>5)</sup>. 빙허도 <빈처>

2) 曹南鉉: 《小說原論》, 고려원, 1982, p.130.

3)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2, p.73.  
We may divide characters into flat and round.

4) W. Kenney; *How to analyze Fiction*, Monarch Press, 1966, p.28.

With regard to the kinds of characters portrayed, it may be helpful to follow the practice of many critics and divide fictional characters into two general categories. Over names for these categories will be simple characters and complex characters.

5) S. 리몬-케넌; 《小說의 詩學》, 崔翊圭譯, 文學과 知性社, 1985, pp.92~108.

의 인물들을 창조하면서 이들 직접한정·간접제시·유비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빈처〉에는 모두 아홉 사람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나(K)와 아내는 이 소설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주요인물이며, T·처형·오촌당숙·부모<sup>6)</sup>·장모·할멈·옆집할멈은 그들의 태도를 통해 주요인물들의 특성을 규정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인물들이다.<sup>7)</sup> K·아내의 주요인물 가운데서도 작품내적 자아는 작품외적 자아인 현진건의 분신격인 K라고 할 수 있다. 작품내적 자아가 K(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이 1인칭 시점임을 말하며, 먼저 K에 대한 인물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머지 인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K에 대한 직접한정은 3인칭 소설의 경우와는 달리 많이 나타날 수 없으나, 〈빈처〉에서의 K에 대한 직접한정은 다음의 몇 가지 서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六年前에(그때 나는十六歲이고 처는十八歲이었다) 우리가結婚한지얼마아니되어 知識에목마른나는知識의바다사물을어더마시라고 飄然히집을떠났었다 狂風에나부껴는버들葉모양으로 오늘은支那, 來日是日本으로구울러단이다가 金錢의탓으로 知識의바다사물도흡셀마셔보지도못하고 썩거뒤충이가되어 집에돌아오고말았다<sup>8)</sup>

내가外國으로돌아단일 때에所謂新風潮에 썩어까닭업시 舊式女子가실헛섯다 그래서나의일즉이장가든것을매우後悔하였다 어떤男學生과어떤女學生이서로戀愛를주고받고한다는이악이름들을적마다 空然히가슴이뒹놀며부럽기도하고悲感스럽기도 하였섯다<sup>9)</sup>

6) 실제로는 두 사람이나 〈빈처〉에서는 한 사람의 역할로 설정되었다.

7) R.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Holt, Rinehart & Winston, 1965, p. 18.

Obviously, their attitudes toward a major character are important. Not so obviously, their similarities to, or differences from, him help to define his most significant traits.

8) 〈黃妻〉, 〈開關〉7號, 1921, p. 165.

9) 앞의 책, p. 166.

내가아다십히내가별로天稟은업스나 어엿던무슨著作家로몸을세워보았스면하야  
나날이創作讀書에全心力을바치었다 勿論아죽남에게認定될加値는업는것이다그影  
響으로自然日常生活이 末由하게되었다<sup>10)</sup>

6년 전 16세 때 결혼했다는 것은 지금의 나이가 22세의 젊은이임을 의미하며, 지식에 목말랐던 K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전문을 넓혀 지적 엘리트임을 직접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K의 조혼과 지식에 대한 K의 태도 가운데서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성격의 이중성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그를 제약하는 사회구조는 봉건적이고 폐쇄적인데 반해 그의 내면에는 근대적 성격으로 가득차 있다. 뿐만 아니라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족히 마셔보지 못한 채 돌아옴으로 K의 지적 엘리트로서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구식여성으로서 신식학문에 물든 K와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식여자를 싫어하는 심리가 K에게는 내재해 있다. 그런 나에게는 자유연애사상이 은연 중에 싹트며, 이는 어떤 남·여학생이 서로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며, K의 조혼을 후회하게 된다. 이러한 K는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전통적 성격에서 근대적 성격으로 나아가려는 과도기적 인물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경험의 재현과 해석과 미적 정형화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sup>11)</sup> 작품내적 자아인 K의 이러한 태도는 작품외적 자아인 빙허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모르게 된다. 그럴수록 아직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물질적·정신적인 K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K의 성격창조는 직접한정에서 뿐 아니라 간접제시인 그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행동에서 두드러진데, K의 이러한 행동들은 습관적 행동이기보다는 일시적 행동들로 묘사되었다.

나는漸漸전될수업시 두손으로허터진머리카락을쓰다듬어올리며 중얼거려보았  
다 이말이더욱凄涼한생각을일으킨다는나는또한번 「후-」한숨을내쉬며원팔을비

10) 앞의 책, p.166.

11) 버너드 J. 패리스; “作中人物과 숨겨진 作者”, 崔翊圭譯,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3, p.295.

고 册床에 쓸어지며 눈을감았다<sup>12)</sup>

사나운 語調로 물풍스럼게 소리를 썩질렀다<sup>13)</sup>

우리 집은 川邊배다리 거베잇고 妻家は 安國洞에 잇서 그 距離가 꽤 멀었다 나는 천천이가노라고가고 안해는 速히 오노라고오전마는 그는 늘 뒤 췌어져 나를 팔아오라고 애를 쓰며 주춤주춤 걸어온다 길기에 단이는 어느 女子를 보아도 거의 다 비단 옷을 입고 고혼신을 신었는데 안해는 唐木 옷을 허술하게 차리고 청목당혀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양이 나에게 얼마나 哀然한 생 각을 일으켰는지!<sup>14)</sup>

마음속으로 어러케 부르지지며 두팔로 덤석 안해의 허리를 잡아 내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다음 瞬間에는 뜨거운 입술이……. 그의 눈에 도나의 눈에도 그렇그런한 물이 물뿔뿔 넘쳐 흐른다<sup>15)</sup>

처음 행동은 아내가 장문을 열고 이미 전당포에 맡긴 모본단저고리를 찾는 것을 보고 퍼던 책을 덮어 놓고 하는 행동이다. 온 천지가 고요하여 떨어지는 빗소리마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내게 하기에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고 독백 아닌 독백을 하면서 현실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발견된 현실적 자아는 2년 동안 돈 한 푼 나는 데 없이 가구와 의복을 저당 잡히고 허기를 때워가는 K이다. 그래서, 아내의 이미 저당 잡힌 모본단저고리를 다시 찾을 만큼 무감각해진 것을 보면서 괴로와하는 행동이다. 두번째 행동은 T의 방문에서 빛어지는데, T가 그의 아내를 위해 산 양산을 아내가 봄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아내가 살 도리를 찾아야 한다는 다그침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차차 살 도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아내를 타이르지만 K의 이러한 설득도 아내의 인내심에 한계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K와 아내 사이에는 거리가 생겨나며, 이 거리는 장인 생신에 가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나타난다. K는 천천히 걸어가나 빨리 걸어오는 아내와는 항상 거리가 있게 된다. 처가댁에 먼저 당도한 것은 K이고 아내는 나중이다. 이와 같은 K와 아내와의 거

12) 《開闢》 7號, 1921, p.161.

13) 앞의 책, p.164.

14) 앞의 책, p.169.

15) 앞의 책, p.173.

리는 부부가 함께 나란히 견지 않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K와 아내 사이의 대립적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길가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비단옷을 입었음에 반해 아내는 당목옷을 허술하게 입어 K로 하여금 측은한 생각이 들게 하고, 내면적으로 K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나아가 아내와의 거리를 느끼게 한다. 그리기에 K도 빨리 출세하여 아내의 비단신을 사 줌으로써 아내와의 거리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아내 역시 그것을 기대함으로써 두 사람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니 대립적 구조가 화해로 전환된다. 따라서, <빈처>는 K와 아내 사이에 대립과 화해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K에 대한 성격창조는 직접한정과 대화 이외에 K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막버리군한테나 시집을갈것이지 누가내게시집을오래서서! 저짜위가藝術家의妻가다 뭐-야!」<sup>16)</sup>

「넌들마누라를苦生시키고십혀시켜겄소 비단옷도해주고십고조혼洋傘도사주고 십혀요! 그러킬래日終日쉬지않고工夫를아니하오, 남보기에는편편히노는것가타도實相은그러치안해! 본든모른단말이요」<sup>17)</sup>

「원世上사람이다나를誹笑하고 侮辱하여도 相關이업지마는 마누라까지나물아 니미더주면어찌한단말이요」<sup>18)</sup>

첫번째 대화는 T의 양산에 자극 받은 아내가 살 도리를 찾아야 한다며 다그치는 데 대한 K의 태도이다. 이 대화에서 특기할 것은 자칭 예술가로 자처하면서 그 대비적 인물로 막벌이꾼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가 정신적 행복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막벌이꾼은 물질적 행복의 표상이다. 살 도리를 찾아야 한다는 아내의 세속적 태도는 막벌이꾼과 어울리는 것이지, K와 같은 예술가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첫번째 대화는 사나운 어조의 물똥스런

16) 앞의 책, p.164.

17) 앞의 책, p.167.

18) 앞의 책, p.167.

소리이며 이는 아내의 물질적 태도에 대립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두번째 대화와 세번째 대화는 가면을 벗고난 무능력한 지식인의 변명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나의 무능력을 이해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작가 지향의 K와 현실 속에 있는 K의 대립적 구조이다. 그러나, K는 무능한 인간도 아니고 나태한 인간도 아니다. 그 당시 문인으로서의 활동이란 개화기 선구자로서의 사회적 참여이며, 이에 대하여 금전적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능이란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의 능력이란 돈 버는 능력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나머지는 무가치하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19)</sup> 아울러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구조는 지적 엘리트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K의 대화들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K와 물질적 행복에 직접·간접으로 젖어들었거나 젖어드는 T와 처형, 그리고 아내의 자극에 의해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데, 간접제시로서의 K에 대한 외양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간접제시로서의 환경은 드러나고 있다. 그 환경은 크게 방·집·거리·도시 등을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과 가정·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인간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妻家德으로 집간도장만하고 세간도어더 우리는所謂살림을하게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지내어지마는한문나는대업는살림이라 한달가고두달갈수록漸漸困難해질  
짜름이었다<sup>20)</sup>

醉中에도人力車를타어주지말고 그人力車삭을 나를주었스면 冊한卷을사보련만  
하는생각이엇섯다 人力車를타고 얼마아니가서 그만잠이들고말았다

한참자다가 잠을 깨어보니 房안에벌서람무불이키엇는데 안해는어느결에왔는지  
외로히안저바느질을하고火爐에서는무엇이 쫄는소리가보글보글하였다<sup>21)</sup>

비록 처가덕이긴 하지만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마련하여 살아가는 나는 장

19) 金宇鍾: “〈貧妻〉의 分析的 연구”. 《玄鎮健의 소설과 그 시대인식》, 새문社, 1981, pp.11~12.

20) 《開關》 7號, 1921, p.165.

21) 앞의 책, p.170.

인 생신에 참가했다 만취가 되었으나 인력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사회적 제층에 속한다. 그러나, 인력거를 탈 수 있는 사회적 제층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인력거 샅이 아까울 정도이다. 당장 끼니가 걱정스러운 게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는 인력거 샅으로 책이나 한 권 샅으면 한다. 이는 현실적 인물이기보다는 이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력거를 타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가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이는 아내의 전당포행과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물질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생활과 작가 지향의 이상생활 사이의 괴리감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K에 대한 성격창조는 유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T는돈을알고 爲人이眞實해서 그애는돈푼이나모을것이야! 그러나K(내이름)는아모썩에도 못쓸놈이야그잘난諺文석겨서 무어라고說져어려노코 제주제에는무슨朝鮮에有名한文學家가된다니! 실업의아들놈!」<sup>22)</sup>

「얼마아니되어T는잘살것이고 K는거지가될것이니 두고보아!」<sup>23)</sup>

전자는 친척들 사이에 비교된 이야기이고, 후자는 오촌당숙의 얘기로서 K와 T간의 인물 사이의 유비(analogy between character)이다. 처음 대화에서 T는 돈을 알고 현실적으로 사람됨이 진실되어서 재물을 모을 것이지만, K는 T와는 대립되는 비현실적 문학가를 지망하여 허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T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곧 이러한 인물 사이의 유비는 프로타고니스트인 작품내적 자아와 안타고니스트인 작품내적 세계의 대립적 구조를 선명하게 하여 <빈처>의 작품세계를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작품내적 자아인 K는 물질적 행복보다는 정신적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는 K가 지향하는 것이 작가이고 작가의 주된 활동은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의 물질적인 욕망들은 K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K는 16세에 조혼하였고 중국과 일본 등지를 여행

22) 앞의 책, p.162.

23) 앞의 책, p.162.



행하면서 신평조에 접했던 봉건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을 함께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아내에 대한 성격은 시종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아내를 비롯한 T나 처형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도 그의 근본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타고니스트인 K는 평면적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빈처〉에 있어서 K에 대한 상대인물은 아내이다. 아내가 K의 상대인물이라는 것은 곧 안타고니스트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빈처〉의 스토리는 K와 아내 사이에 대립과 화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성격들을 직접한정·간접제시·유비의 방법으로 분석할 때, 아내에 대한 직접한정은 다음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도색색로만난飯饌이床에오르고입은웃이果히醜하지아니함은專혀안해의힘이었다 전들모슨별이가트스리요 부요름을무릅쓰고親家에가서 눈치를보아가며 구차한소리를하여가지고 어더온것이였다 그것도한번두번말이지 長久한歲月에어 썩늘그럴수가트스라-末境에는안해가가저온세간과衣服에 손올대는수밖에업섯다 잡히고파는것도 나는알은체도아니하였다 그가애를쓰며 특명스러운업집한편에게 푼돈을주고시켰섯다<sup>24)</sup>

그러나나사람이들어갈수록 그런생각도업서지고집에돌아와안해를격저보니 意外에그에게짜뜻한맛과純潔한맛을發見하였다 그의사랑이야말로利己의사랑이아니고 獻身의사랑이였다<sup>25)</sup>

현실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생활에서 남편의 만난 반찬과 과히 추하지 않은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는 시집을 때 가져온 세간과 의복을 옆집할멈을 통해 전당포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남편을 대신할 어떤 수입의 보장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재를 하나씩 처분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식여자의 한 전형으로 그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며,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그녀는 갈등하고 남편과 대립한다. 이러한 아내 스스로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대립이 T나 처형에게서 주어지는 자극과 결합될 때 구식

24) 앞의 책, pp. 165~166.

25) 앞의 책, p. 166.

여자들의 한 특성이었던 인종의 자세만을 견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남편을 다그치게 되고, 남편의 반발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비본래적 자아에서 본래적 자아로 되돌아왔을 때 남편과 화해하고 헌신적 사랑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아내와 남편과의 대립과 화해는 아내의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結果그다지견딜성있던저도 요사이와서는 袞袞로쓸대없는 歎息을하게되었다 손잡이를잡고 마루에우뚱혀니서서 하염업시먼산만바라보기도하며 바느질을하다가말고 失心한사람모양으로 멍멍히안절기도하였다 窓鏡으로비추는으스름한해빛에 나는흔히그의눈물먹음은근심있는눈을發見하였다<sup>26)</sup>

「인제고만일어나 진지를잡수세요」

하고불이나케일어나 구들목에다무더둔 밥그릇을쓰어내어 미리차려둔床에언저서 내압해갓다노코—邊火爐를당기어 더운飯饌을집어언즈며

「자—어서일어나세요」

나는마지못하여하는듯이 부시시일어났다 머리가오려려압으며 목이몹시말라서 국과물을連해들이켰다

「물만잡셔서어쵸요, 진지를잡수셔야지」

안해는이런근심을하며 밥床머리에안저서 고기도뜨더주고 생선쵸도추려주었다 이것은다오늘妻家에서가져온것이다 나는맛나게밥한그릇올다먹었다 내밥床이나 매 안해가밥을먹기始作한다<sup>27)</sup>

근 2년 동안 K의 창작생활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인 궁핍만이 가중되자 견딜성 있던 아내는 실신한 사람과 같이 되어간다. 이는 점점 그녀 자신이 현실적인 생활 속에 빠져들고 있으며 남편과의 대립적 요소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그러다가도 본래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만취된 남편의 저녁식사를 걱정하고 상머리에 앉아서는 고기도 뜯어 주고 생선도 추려 주는 아내가 된다. <빈처>에 있어서 아내의 성격창조는 바로 이 행동에 의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대화는 아내의 성격을 창조하는 직접적인 구실을 한다.

26) 앞의 책, p.166.

27) 앞의 책, p.170.

이러한 아내의 대화는 크게 남편과 대립되는 대화와 화해되는 두 가지의 대화로 나눌 수 있다.

「여보!」

안해의 썩는목소리가 바로내거겨테서들린다 피스피업은얼굴에살썩붉은빛이돌며 어느결에 내겨테바싹다가안젓더라

「당신도 살도리를좀하셔요」

「.....」

나는또「始作는구나」하는생각이번개가티머리에 번적이며 不快한생각이벌럭일어난다 그러나무어라고대답할말이업서默默히이섯다

「우리도남과가티살아보아야지요!」<sup>28)</sup>

이번에도「그럴만하다」는同情心이업지아니하되또한不快한생각을抑制키어려와다 暫間있다가不快한빛을들어내며

「급작스럽게도살도리를하라면 어찌할수가잇소, 차차될때가잇겠지!」

「아이구, 차차란말슴그만두그러, 어느千年에.....」<sup>29)</sup>

「容恕하여주셔요! 그러케생각하실줄은 참몰랐셔요」 이런말을 하는 안해는 눈물에불어오른눈썹질을압픈듯이 씩적어린다

암만苟且하기로니 실症이야날가요! 나도한번먹은마음이잇는데.....」<sup>30)</sup>

T가 그의 아내의 양산을 산 것을 보고서는 아내는 T의 아내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게 된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견딜성 있던 아내에게도 그 견딜성의 벽을 허물게 만든다. 그러한 아내는 남편에게 살 도리를 찾아야 한다고 다그치는데, 이러한 처음과 중간의 대화들은 남편과 대립된 대화들이다. 그런 반면 물질적 충동이 가시고 K의 아내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에게 앞서의 자기의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받고 있다. 아울러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남편이 성공하여 현실적 궁핍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바로 남편과 화해된 대화이다. 이러한 아내의 대화들은 그것이 물리적 환경이든 인간적 환경이든 남편과는 동일

28) 앞의 책, p. 163.

29) 앞의 책, pp. 163~164.

30) 앞의 책, pp. 167~168.

한 환경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한정·담화·행동·대화 이외에도 외양 묘사와 유비의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묘사하고 있다.

내게시집을책에는 방글방글 피라는꽃봉오리갓던안해가 어느결에 이올어가는  
꽃처럼 두쌍에鮮妍한빛이슬어지고이마에는벌서두어금가는줄이그리었다<sup>31)</sup>

나는有心히그와안해를번갈아보았다 처음보는사람은 分擘을못하리만큼 그들의  
얼굴은酷似하다 그런데 얼굴빛은어썩면저러케틀리는지? 하나는 이글이글滿發한  
꽃갓고 하나는시들시들마른落葉갓다 안해를 뉘이라고하고 妻兄을 아오라하였스  
면 아모라도속을것이다<sup>32)</sup>

아내가 K와 결혼할 때가 18세였으므로 그때는 꽃봉오리 같았지만은 지금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이마에 두어 줄의 이맛살이 생겨난 그런 아내이다. 이는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생활에 쪼들리는 아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아내와 처형과의 유비는 아내의 현실적 위치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대립적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만발한 꽃은 처형이고 시들은 낙엽은 아내이다. 그러기에 아내는 형 같고 처형은 아우 같은 대립적 인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아내는 처형과의 대립에서 늘 갈등을 느끼게 되며, 이 갈등은 남편과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아내는 18세에 결혼한 구식여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행복을 구하는 남편에 순종하나 때로는 T나 처형 등에 의한 물질적 욕구의 자극에 흔들림으로 비본래적 자아의 모습 속에 빠지기도 하는 평면적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대립적 인물로의 전환은 보조인물인 T나 처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는誠實하고 恭順하며 屑屑한小事에 슬허하고깃버하는人物이었다 同年輩인  
우리들은 늘親戚間에比較(거리가되었섯다 그리고나의評判이 恒常조치못하였다<sup>33)</sup>

31) 앞의 책, p.165.

32) 앞의 책, pp.169~170.

33) 앞의 책, p.162.

그는구두를벗고 마루에올라서며 나오는웃음을참지못하여 빙글빙글하면서 對  
答을한다 그는나의안해를보며突然히

「아지머니 좀구경하시랍니까?」하더니싼조히와집을벗기고羊傘을펴보인다 흰  
비단바탕에두어가지梅花를纏노흔羊傘이었다<sup>34)</sup>

T는알아들어와 物價暴勝에對한이악이며, 自己의月給이오른이악이며, 株卷을  
벗株사두었더니 裨利益이남았다던가, 이번各銀行事務員競技會에서 自己가優越한  
成績올어뒀다던가, 이런것저런것 한참이악이하다가 돌아갔었다<sup>35)</sup>

그중에第一내게 親熟하게인사하는사람이있다 그는안해보다 三年마지인妻兄이  
었다 내가어려서장가를들었슴으로 그썩그는 나를 못견디게시달렸다 그썩은 그  
가실키도하고 밍기도하더니 至今와서는 그썩그리함애 들어우리를無關하고 情  
답게 맨들었다 그는仁川사는데 自己男便이期米를하여가지고이번에 돈十萬圓이  
나 着實히뒀다한다 그는 自己의잘사는것을자랑하고저함인지 비단을나리감고 치  
감고얼굴에 富裕한態가질질흐른다 그러나 粉으로숨기랴고 애쓴보람도업시 눈우  
에퍼러케멍든것이 내눈에썩었다<sup>36)</sup>

「올적에사랑양반을졸라서 돈百圓을어땀것지그래서 오늘鍾路에나와서 옷감도  
바우고, 신도사고...」

그는자랑과깃봄의빛이 얼굴에퍼지며 싹襟를풀러

「이런것이야!」하고 우리압헤펼쳐놓는다

仔細히는모르나 如何間갑만코 品조흔비단일듯하다 紋畿업는것紋畿잇는것灰  
色·玉色·草綠色·粉紅色이갓가지로 潤이흐르며 色色이빛이나서 나는 한참恍  
惚하였다<sup>37)</sup>

T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아내를 위해서 양산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  
줄 아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관심의 대상은 물가폭등, 월급이 오른 이야  
기, 주권에 따른 이익 등의 현세적인 물질적 행복과 관계된 것들로서, 이미 그  
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K와는 거리가 멀다. 부티가 흐르는 처형 역시도

34) 앞의 책, pp. 162~163.

35) 앞의 책, p. 163.

36) 앞의 책, p. 169.

37) 앞의 책, pp. 171~172.

그녀의 남편에게 돈 백원을 얻고서 옷감이나 신 따위의 물질적 행복이 표상하는 것들을 사들인다. 따라서, 이러한 T와 처형의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는 현실의 궁핍함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자극을 가할 뿐만 아니라 K와 아내와의 대립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들 또한 K와는 성격상으로 대립되는 인물로서 안타고니스트이며, 평면적 인물의 성격을 띤다.

〈빈처〉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창조 방법과 인물유형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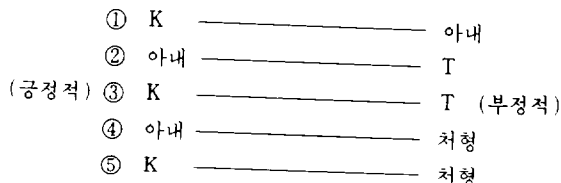
성격창조 유형 인물	직접한정	간접제시				유비	인물유형
		행동	담화	외양	환경		
나(K)	○	○	○		○	○	평면적인물
아	○	○	○	○	○	○	평면적인물
내	○	○	○		○	○	평면적인물
T	○	○	○	○	○	○	평면적인물
처형	○	○	○		○	○	평면적인물
오촌당숙			○				평면적인물
부모			○				평면적인물
장모			○				평면적인물
할멈		○					평면적인물
옆집할멈		○					평면적인물

### 3. 인물의 갈등과 대립

〈빈처〉의 K는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행복 지향의 프로타고니스트인 반면, 아내는 형이하학적인 물질적 행복에 삶의 의미를 찾는 T나 처형에 때로는 자극 받아 K와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는 안타고니스트이다. 대립과 화해를 반복한다는 것은 성격의 이중성을 의미하지만, 끝내 그녀는 변신하지 않음으로 평면적 인물로 묘사되었다. 작가나 독자가 끝에 가서 부정하는, 또 부정해야 할 안타고니스트가 T나 처형과는 달리 프로타고니스트인 K와 화해로 종결을 이룸으로 아내는 프로타고니스트적인 성격을 띤 안타고니스트가 된다.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행복과 형이하학적인 물질적 행복은 그 자체가 대립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역시도 대립의 구조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사적 개인, 즉 소설의 주인공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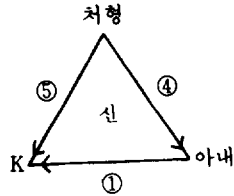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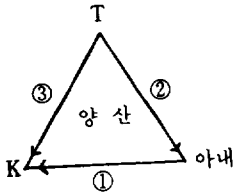
부세계에 대한 낯설음으로부터 생겨나며, 세제가 내적으로 서로 동질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 또한 질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8)</sup> 그것은 시종 독서와 창작활동의 이상적 생활과 당장 끼니가 걱정스러운 현실적 생활 속에서 갈등하는 K와, 언젠가는 남편의 창작활동이 빛을 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이상적 자아 및 양산과 신을 보고서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현실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의 이야기들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K와 아내와의 갈등은 오중의 대립을 낳게 한다. 첫째는 K와 아내의 대립, 둘째는 아내와 T의 대립, 셋째는 K와 T의 대립, 넷째는 아내와 처형의 대립, 다섯째는 K와 처형의 대립이다. 이들의 대립관계를 좀더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의 대립은 〈빈처〉의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주된 대립으로서 신분조에 접한 지적 엘리트와 구식여자의 대립을 근간으로 하면서 정신적 행복의 K와 물질적 행복의 아내와의 대립이다. 이러한 K와 아내의 대립은 아내와 T 및 처형의 대립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데, ②와 ③의 대립이 없었다면 결국 K와 아내 사이의 봉건적 성격 대 근대적 성격의 근본적 대립도 문제시될 수 없다. ②의 대립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아내와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T와의 대립으로, ①의 대립뿐 아니라 ③의 대립까지도 유도한다. ③의 대립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K와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T와의 대립으로 ②의 대립 때문에 발생했으며 ①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④의 대립은 정신적 행복의 아내와 물질적 행복의 처형과의 대립으로 ①의 대립뿐 아니라 ⑤의 대립을 야기시킨다. ⑤의 대립은 정신적 행복의 K와 물질적 행복의 처형과의 대립으로 이는 ①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오중대립은 이중의 삼각관계(triangle situation)를 형성한다.

38) G. 루카치: 〈小説의 理論〉, 潘星完譯, 심설당, 1985,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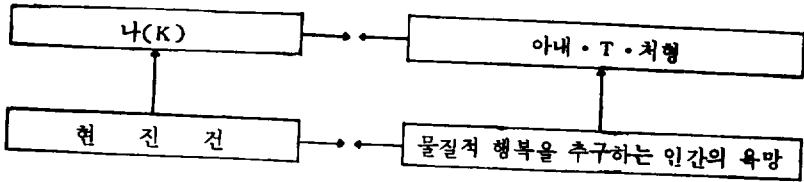
처음의 삼각관계는 K와 아내 및 T 사이에 양산 때문에 빚어지는 대립적 구조이고, 나중의 삼각관계는 K와 아내와 처형 사이에 신 때문에 발생하는 대립적 구조이다. 전자의 경우 T는 K와 아내에게 자극을 가함으로 아내마저도 K에게 자극을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T와 아내의 자극에 K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대립이다. 후자는 처형이 아내와 K에게 자극을 가함으로 아내 역시 K에게 자극을 가하게 되며, 이러한 처형과 아내의 자극에 K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립이다. 이렇게 볼 때 대립의 진원지는 T와 처형이며, 이것이 아내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시 K에게 전해짐으로써 일어나는 대립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중인물들의 대립적 구조는 어디서 온 것까? Zeraffa는 개인과 사회 혹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대립양식이 소설이 다루어야할 기본구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소설 속의 사건은 바로 이 대립양식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sup>39)</sup> 그것을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작품	작품내적 자아	작품외적 자아	작품내적 세계	작품외적 세계
貴 養	나(K)	현진건	아내·T·처형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39) M. Zeraffa; *Fictions*, Penguin Books, 1976, p.90.  
The fictional character sees himself confronted with the impossible, while the possible still remains part of his being.





작품외적 자아인 현진건이 작품외적 세계인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대립되었을 때 작품내적 자아인 K와 작품내적 세계인 아내·T·처형과의 대립적 구조로 나타난 것이 바로 〈빈처〉이다. 이러한 사실은 빙허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되며, 〈빈처〉가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내적 자아인 K는 작품외적 자아인 빙허의 분신이며, 빙허는 지적 엘리트로서의 자신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크나큰 벽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벽을 느끼는 데 충동적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이 작품외적 세계로 나타난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립적 구조를 통해서 사회의 물질적인 탐욕성 및 식민지적 상황에 있어서의 문화의 고갈성에 직면하고 있는 지식인의 위축된 초상을 제기하고 있다.<sup>40)</sup> 따라서, 〈빈처〉는 근대적 자아 인식으로 하여 빚어지는 세계와의 화합할 수 없는 불화를 추구하였다.<sup>41)</sup> 왜냐하면 소설은 타락한 추구과정, 즉 타락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다르게 진전된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양태로 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sup>42)</sup>

#### 4. 마 무 리

이상에서 〈빈처〉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과 인물의 갈등·대립을 살펴 보았다. 〈빈처〉에는 모두 아홉 사람의 작중인물이 설정되었는데 이 중 K와 아내는 주요인물이며, T·처형·오촌당숙·부모·장모·할멈·열집할멈은 그들의 특성을 규정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은 직접한정, 간접제시로서의 행동·담화·외양·환경, 그리고 유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성격창조가 이루어진다. K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작가 지향의 근대적 성격을 띤 평면적 인물로 프로타고니스트인 반면, 아내는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4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81, p. 288.

41) 玄吉彦; “玄鎮健小説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p. 23.

42) L. 골드만; 《小説社會學을 위하여》, 조경숙역, 청하, 1984, p. 12.

T나 처형에 자극받아 때로는 K와 대립되는 평면적 인물로서 안타고니스트이다. 이 외의 T나 처형도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들로서 평면적 인물들이며 역시 안타고니스트이다.

〈빈처〉에는 오중의 대립관계가 일어나는데 K와 아내, 아내와 T, K와 T, 아내와 처형, K와 처형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오중의 대립은 이중의 삼각 관계를 형성한다. 그것은 양산 때문에 빚어지는 K와 아내와 T의 관계이며, 신 때문에 야기되는 K와 아내와 처형의 관계이다. 전자는 대립의 진원지가 T로서 T가 아내에게 자극을 가함으로 아내가 다시 K에게 자극을 가해 대립이 일어나며, 후자는 대립의 근원이 처형으로서 처형이 아내에게 자극을 가하고 아내가 다시 K에게 자극을 가함으로 대립이 발생된다. 이러한 작중인물들의 설정은 작품외적 자아인 빙허와 작품외적 세계인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대립되었을 때, 그것이 작품내적 자아인 K와 작품외적 세계인 아내 및 T와 처형의 대립관계로 형상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빈처〉는 이러한 대립적 구조를 통해서 사회의 물질적인 탐욕성 및 식민지적 상황에 있어서의 문화의 고갈성에 직면하고 있는 지식인의 위축된 초상을 제기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開關〉 7號, 192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81.

曹南鉉; 《小說原論》, 고려원, 1982.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2.

G. 루카치; 《小說의 理論》, 瀋星完譯, 심설당, 1985.

L. 골드만; 《小說社會學을 위하여》, 조경숙역, 청하, 1984.

M. Zeraffa: *Fictions*, Penguin Books, 1976.

R.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Holt, Rinehart & Winston, 1965.

S. 리몬-케넌; 《小說의 詩學》, 崔翊主譯, 文學과 知性社, 1985.

W. Kenney; *How to Analyze Fiction*, Monarch Press, 1966.

버어너드 J. 패리스; “作中人物과 含蓄된 作者”, 崔翊主譯,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3.

趙東一; “自我와 世界的 小說의 對決에 관한 試論”,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81.